광양시, 알스트로메리아 사업 수주계약 '말썽'

〈저온성 화훼〉

市, 3년간 수십억 지원사업 공개입찰 안해

"일반 거래가 보다 비싸게 종묘 구입" 지적

광양시가 지난해부터 3년간 수십억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알스트로메리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잡음이 일고 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반 거래가에 비해 비싸게 종묘를 구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FTA에 대응키 위해 지역 특화 유망화종으로 알스트로메리아를 정해 지난해 5개 농가를 선정해 시범 사업비 4억8000만원을 지원해 H화훼 업체와 농가들 간 종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올해도 4개 농가를 선정해 H업체와 농가의 구매계약 체결에 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종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화훼업체 관계자는 "선정 과정 및 종묘 구입가, 공정한 업체경쟁 제한, 공개입찰 비적용 등 사업이 너무도 불투명하다"며 "광양시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농가 지원을 핑계 삼아 비싸게 종묘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알스트로메리아 1주당 2만원의 견적서를 낸 업체도 있었으나 H업체는 1주당 2만4200원에 2만여주를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주에 4200원씩을 비싸게 구입해 8400여 만원의 예산을 허비한 셈이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H업체와 올해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체들은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이 복수의 업체들에게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먼저 선정한 뒤 농가에 공급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네덜란드에서 알스트로메리아 종묘를 수입하고 있어 종묘배양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식재시기를 맞추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알스트로메리아='배려와 새로운 만남'이라는 꽃말을 지닌 저온성 화훼. 남미가 원산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꽃이지만 국제 화훼시장에서는 화려하고 품종이 다양해 각광받는 꽃이다. 저온에서도 발육이 잘 돼 유류비 절감이 가능하고 병충해에도 강하다.

화순 남면서 멸종위기 '히어리' 군락지 발견

화순군은 20일 "지난 18일 남면 주산리 인근 산에 자생하는 히어리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사진〉 히어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보호종이다.

히어리는 송광납판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높이 1~2m이고 작은 가지는 황갈색 또는 암갈색이며 피목(皮目)이 밀생한다.

겨울눈은 2개의 눈비늘로 싸여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밑은 심장형이다.

잎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없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김충석 여수시장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

박람회 사후 활용방안 문제 등 500여건 사업·정책 건의 봇물

김충석 여수시장의 시민과의 대화가 19일 마무리됐다. 지난달 18일 대교동을 시작으로 민의 수렴에 나선 김 시장은 한 달 동안 관내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모두 6180여 명의 주민을 만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민선 5기 핵심정책인 국제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문화 수도 건설 방안, 2013년도 시정 운영 방향, 지역현안에 대한 방향 등을 차례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박람회 사후 활용 문제와 문수동 다산아파트 건설사업, 시티파크 특구개발관련 공익 불이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주로 거론됐다.

특히 문수동 다산아파트 신청부지 내 아들 소유의 땅 관련 투기 의혹과 관련 "28년 전인 1985년에 2필지를 취득한 후 한 필지는 1986년 1월 등기이전했고, 한 필지는 명의 신탁했다가 1996년에 명의 신탁 해지 후 등기 이전한 토지로서 투기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 신청부지는 1974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로, 민선 3기였던 2004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시민들이 건의한 500여건의 사업 및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수급 현황을 보면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강진 작천면 '사랑의 집짓기' 지난 19일 작천면 하평마을에서 강진군청록회 주관으로 강진원 강진군수, 김은식 군의원, 백종일 작천면장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 준공식이 열렸다.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작천면 하평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노부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접한 지역 봉사단체와 강진군 등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주시 '토양검정사업' 주력

중금속 분석 장비까지 갖추고 시설도 확대

나주시가 토양검정실의 장비와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해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토양검정사업'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검정필지 2693건, 친환경농산물인증 2808건, 직불제 969건, 농업인 의뢰 331건 등 모두 7581건의 토양분석과 식물체 50건, 액비 78건 등 모두 7709건의 검정 실적을 보였다.

시는 올해 분석시료를 1만점까지 늘리고,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는 한편 토양검정실의 규모를 현행 55㎡에서 100㎡로 확대해 토양과 가축액비, 식물체(엽) 등의 성분을 적기에 분석해 농가에 제공할 방침이다. 토양검정은 매년 관내 주요 작물재배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양 화학성분인 PH, 유기물, 유효인산, 염류농도 등 8가지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적정한 시비량을 처방해서 비료의 과다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순천정원박람회 홍보 문화상품 나왔다

어린이용 캐릭터 수첩·다용도 다기세트·꽃씨엽서·자개컵받침 등 4종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달 20일 개막하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용 문화상품 개발을 완료,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지난해 8월 착수한 이 사업은 8개월여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박람회 마스코트인 '꾸루와 꾸미'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용 캐릭터 수첩, 흑두루미와 갈대 등 순천의 관광자원을 형상화한 다용도 다기세트〈사진〉, 꽃씨엽서, 자개컵받침 등 문화상품 4종이다. '꾸루와 꾸미'는 순천만의 명물인 두루미를 형상화 한 것이다.

개발된 문화상품은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캐릭터 관련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된다.

또 광주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수공예품 전문매장 '오핸즈(OHANDS)'관에도 전시돼 정원박람회 홍보 역할을 한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약 20여 종의 캐릭터가 있지만 함평나비축제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상품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부진한 실정이다.

김영주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문화상품 개발은 지자체가 보유한 문화자원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특화된 캐릭터산업 육성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캐릭터와 문화상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지역 중화상 환자 2시간내 서울 전문병원 이송

한강성심병원 등과 업무협약

여수에서 중화상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로 2시간 내 서울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 구호체계가 마련된다.

여수시, 서울 한강성심병원,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 3개 기관은 21일 여수시청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여수에서 발생한 중화상 환자를 헬기로 2시간 안에 화상 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항공구급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강성심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화상전문응급질료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지난달 중앙 119구조단과 항공구급서비스를 제공받는 협약을 이미 맺어 이번 후속 관련 협약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여수시는 화상환자가 항공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헬기장 마련 등 이송 지원을 돕고 한강성심병원은 화상환자에 대한 이송과 치료, 여수산단 근로자들에 대해 화상 응급처치 교육,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순천박람회 '사후면세점' 운영키로

市 "외국인 관광객 쇼핑 기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20일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순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TAX FREE 환급 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로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서울, 부산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될 경우 면세판매장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게 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부담은 없고 신청 절차도 간단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순천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촉진하고 소비확대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